

# 신구권력 충돌 봉합...집무실·인사권 갈등 여지 여전

### 문 대통령·윤 당선인 회동...정권 인수인계 작업 속도 낼까

### 회동 의제 못오른 MB 사면, 문 대통령 먼저 나서기 어려울 듯 정부조직법 개편안·집무실 이전 예비비 실무 협의 과정 '뇌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됨에 따라 정권이양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구 권력의 극한 대립이 일단 봉합된 모양새를 갖춘 만큼 이제 실무협의 담당자들도 부담을 덜고서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몇 차례 큰 고비는 남아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MB사면 여부=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카드 가운데 가장 파괴력이 큰 것으로는 단연 특별사면을 꼽을 수 있다. 정치권에 서는 문 대통령 임기 종료일인 5월 9일 하루 전날이 석가탄신일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이 이뤄질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면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던지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며 어느 쪽이든 문 대통령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전날 사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음에 따라 현재로서는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사건임을 전제로 "만일 여제 회동에서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전혀 사면이 논의되지 않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먼저 사면에 나서기는 어려울 보인다"고 전망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고 있다.

여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동시 사면을 할 경우 '귀워널기 사면'을 했다는 비난에 처할 수 있고, 그렇다고 김 전 지사를 제외하고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하면 지지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면 가능성은 남아있다. 문 대

통령이 강조한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에 부담을 넘기기 보다 '결자해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집무실 이전 및 정부조직법=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으로 초유의 신·구권력 간 '치킨게임' 양상은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양측의 감정의 골이 완전히 메워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든 다시 갈등이 점화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당장 전날 '실무협의'로 풀어가기로 한 집무실 이전 예비비 문제나 인사 문제 등이 다시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 청와대는 여전히 이전 일정을 늦추기를 바라고 있지만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통 큰 예비비 합의'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이 세부 계획을 세운 뒤에도 문 대통령이 '면밀한 검토'를 명분 삼아 예비비 의결을 늦춘다면 윤 당선인의 '융산 시대' 구상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인사권 문제 역시 감사원의 '신·구 권력의 협의' 없이 감사위원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출에 따라 일단은 윤 당선인 측에 실질적인 인사 주도권이 넘어간 모양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청와대가 감사위원 인사권 행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나 다른 공공기관 인사 문제 역시 언제든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나 새 정부 첫 내각 구성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한다면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다시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정부 인수인계 작업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29일 광주 광산구 GGM(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앞에서 6·1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명주기자mjna@

## “혁신의 리더십으로 중단없는 광주발전”

### 이용섭 광주시장 재선 출마 선언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 완성” 동서 초광역경제권 구축 등 공약

이용섭 광주시장이 6·1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재선 도전 행보에 나선다. 이 시장은 29일 오전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의 일터' 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 없는 광주 발전을 통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년을 오롯이 ‘광주의 시간’으로 만들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악조건에도 광주는 시민과 함께 많은 변화와 역사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대표적인 성과로 광주형일자리 성공, 인공지능 산업 선점, 기후위기 선제 대응,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한 출생아 수 증가 등을 꼽았다.

이 시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의 리더십, 시대를 선도해온 의향 광주의 품격에 걸맞은 시장다운 시장은 이번에도 이용섭이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국정 경험과 전문성, 중앙 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도덕성과 품성과 자질이 검증된 서번트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과 함께 민선7기의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뛰어넘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완성해 5년 후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고 미래 100년을 대비하겠다”며 “이를 위해 양적·질적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양적 대전환으로는 경제적 자생과 자립이 가능한 초광역경제권을 만들어 광주 중심의 지역국가(Region State)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경제적 자생·자립이 가능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 광주 중심의 지역국가를 만들겠다”면서 “광주·전남 통합 완성을 위해 선행 모델로 광주와 인접한 나주·화순·담양·함평·장성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 30분 생활권의 ‘빛고을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동서 초광역경제권 구축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인공지능 기반 최첨단 도시 조성 ▲친환경 정정 도시·녹색산업도시 조성 ▲미래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와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단지 구축 등을 공약했다.

이밖에 세계적 수준의 특급 호텔 유치, 상생형

복합쇼핑몰 입점, 친환경 무등산 접근성 제고를 비롯한 여가·관광 인프라 확충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번 재선 도전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소신껏 혁신해 더 크고 더 강한 도시, 사람의 나라 광주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이날 출마선언 장소를 광주글로벌모터스로 정한 것은 자신의 민선 7기 최대 성과로 꼽히는 ‘광주형일자리’를 상징하는 공장인데다, 일자리 경제시장을 내세웠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시장은 오는 31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록도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시장은 문영훈 행정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간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인수위, 세종 대통령 2집무실·국회의사당 논의

### 총리실·행복청 설치 방안 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국무총리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함께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와 경제2분과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각각 국무총리실, 행복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총리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 방안을 보고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방직이 결정되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며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

안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복청도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고 국회의세종의사당을 조기에 개원하는 데 있어 중점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와 총리실, 행복청은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을 추가로 세종시에 이전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인수위는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신 방향을 다뤘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 소기업 소상공인 복지혜택! 펼쳐라 노란우산 열려라 희망자산

홍양 시설 지원    병합 가족사진 지원    건강 검진 혜택    경영·세무 상담

홍보대사  
양지은

홍보대사  
김준현

창립 60주년  
중소기업중앙회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지자체 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 월 최대 100만원 납입 가능

코로나 위기 노란우산과 함께 극복하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최대 24만원 가입 장려금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가입문의1666-9988www.8899.or.kr